

법사위 국감은 매일 ‘추미애 공방중’

국민의힘 “추, 거짓 진술”...여 “무혐의 인정하라” 고성

여야, 라임·옵티머스 사태·北 피살 의혹 ‘창 vs 방패’ 대결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여당이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서자 ‘방탄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해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대위 연락처를 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다”며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이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일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게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 저도 보좌관과의 얘기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끼어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말끝마다 개입해서 추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며 질의를 방해한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이 다시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 질의는 하지 않고 추 장관 사건으로만 계속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도 안 묻는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냐 법무부 직원이나. 이를 방해하는 건 방탄국감”이라고 가세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지엽적인 질문을 (답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삼가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을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탈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템플레이를 펼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거론하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규정하면서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사망 공무원이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고 따졌고, 황서중 인사혁신처장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을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렵냐”고 제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 김봉현 고소장 접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 쇄신작업’ 혁신위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낙연 대표가 혁신위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민주당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스스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해보자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혁신위가 꾸려진다면 내년 4월 재보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당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의 정책 의제를 정비하고 윤리 규정 강화 같은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 구성에 이어 당내 기풍 잡기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이 과정에서 ‘김상곤 혁신위’를 사례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끈 혁신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민주당에 마련된 혁신위다. 그러나 당시 야당으로서 선거 연패의 나락에 빠졌던 2015년과 거대 여당까지 된 지금의 상황이 다른 데다, 당내 제도개혁 과제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점에서 혁신위의 존재 이유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진석 “자동차안전단속원 13명론 불법 단속 역부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화물차의 ‘판스프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판스프링 파편에 가슴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오늘 판스프링을 직접 가지고 나왔다. 실제 들어보니 20~30kg쯤 된다”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은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문 의원은 “국토부가 10월 5일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말뿐인 대책”이라며 “현재 공단의 단속원 숫자는 13명뿐이다. 13명으로 단속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옆에 지지대 용도로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회수율 30% 불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율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으



며,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돼지등급판정, 품질향상·가축개량 효과 미미”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걷어들이는 수수료가 10년동안 603억에 이르지만 등급판정의 목적인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징수한 돼지등급판정 수수료는 총 603억에 달한다”면서 “반면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을 판정



받은 돼지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2014년 23.8%였던 1+최고등급 돼지는 2018년에 29.6%로 5년동안 1.3% 증가에 그쳤다.

같은기간 등급을 제외하고 최하위등급인 2등급은 32.0%에서 31.8%로 변화했다.

김승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잘못해 예산 낭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2019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구매된 감자 3000톤을 구매가격의 3% 가격에 판매했고,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3억원의 폐기비용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는 2019년 감자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억원을 들여 3000톤의 감자를 kg당 888원에 구입하였다.

그중 2000톤의 감자를 kg당 25원으로 판매하여, 30억으로 구입한 감자들



5000만원에 판매했으며, 상태가 좋지 못해 판매하지 못한 1000톤의 감자는 3억원의 폐기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산물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광주·전남 기상관측장비 15% 내구연한 초과”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장비 15%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며 “도서지역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이 강은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건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건이 일어났고 올해 8월까지 49건이 발생했다. 또한 긴급보수에 이를 이상 소요되는 건수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20.8)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현재까지 지상에 운용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101개이다. 이 가운데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장비가 15%인 총 15개에 달했다. 올해에만 20%인 21개가 내구연한이 끝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